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후 뜻밖의 ‘평양 냉면’ 열풍이 불고 있다. 회담 만찬 메뉴에 평양 육류관에서 직접 공수한 냉면이 올랐기 때문이다. 평양 냉면의 맛은 무엇보다도 육수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평양의 황소를 이용한 육수는 단연코 최고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평양냉면 전문점들은 모두 최고의 한우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한우의 품질은 음식의 고유한 맛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전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평양에는 이른바 ‘평양 황소’라 불리는 품종의 소가 존재하였다고

평양황소 이야기

한다. 이 평양 황소의 뛰어난 육질과 맛이 평양냉면을 지켰은 맛의 비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중섭 화가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황소도 북한의 대황소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처럼 북한의 소는 매우 친숙한 동물이었으며, 북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물일경기에도 대황소를 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아마도 북한의 대황소는 그들의 정서와 민족성을 대변하는 일종의 고향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동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번 평양냉면의 이슈를 접하면서 북한의 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일본의 조선대학 교수에게 평양 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그 교수는 이미 정년을 한 후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노(老)교수로, 북한을 자주 드나들며 북한의 희귀동물에 대해 연구한 학자이기에 북한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평양 인근 지역에서 꽤 유명한 황소를 키우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의 황소를 북한에서는 평양 황소라 부른다’고 하였다.

북한에는 농경을 담당하는 일소와 고기를 제공하는 고기소가 있는데, 이 중 평양 황소는 고기맛이 뛰어난 고기소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이 소를 일본으로 데려가 지금의 화우 품종을 만들고 뛰어난 맛을 지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한다.

외모는 황소의 경우 머리 쪽이 검은색을 나타내고, 피부는 약간의 얼룩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황소와도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평양황소는 고려시대부터 명맥을 이어 온 고기소로 맛이 일품이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매우 적어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는 약 300만 두로 그 중 황소는 6000 여 두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황소를 제외하면 내륙의 황소는 매우 적은 두수만이 사육되고 있다. 각 시도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황소를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일반 한우보다 번식속도가 늦어 그 수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맛보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지난해 아산의 황소 단지와 번식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황소의 고기 맛을 본 적이 있는데, 일반 한우보다 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평양의 황소도 이러한 맛이었으리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소고기의 맛은 고기가 함유하고 있는 지방산과 아미노산의 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양황소의 경우에도 고기의 풍미에 관여하는 올레인산과 유리 아미노산이 풍부한 품종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남북 관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북한의 자원개발에 관심을 갖는다면 평양소의 증식은 우리나라 한우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DMZ에 ‘평양황소 대량 증식센터’를 조성, 우리 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우수한 한우의 개량으로 이어져 농가소득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제 평양냉면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평양황소의 증식으로 인한 한우의 개량이 평양냉면의 감칠맛과 깊은 사골 국 같이 진한 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종교칼럼

어쩌다 보니 구경꾼



황영암
화순 용암사 주지스님

영화가 극장에 걸려서 상영되는 시점이 되면 관객은 영화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구경꾼은 세상의 한 부분이다. 그저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이면 승가의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종단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 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사회 곳곳에서 적폐 청산의 물결이 일었고 조계종단 역시 적폐를 청산하자는 흐름이 일어났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를

거지며 기독교자들은 수성에 성공하였고, 종단 내 적폐 청산 운동은 소수의 외침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번 MBC PD수첩의 “큰스님께 묻습니다” 방영을 계기로 다시 촛불 범위를 시작한 모양이지만, 호응은 여전히 그리 크지 않은 모양이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역시 나는 구경꾼이다. 종단 내 적폐 청산 운동에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다. 기껏 동참한다고 해봐야 페이스북에서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정도다.

꽤 오래 전에 누군가가 내게 “그래도 감옥살이보다 중노릇하는게 더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한참 동안 뻔히 쳐다보았던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위로랍시고 한 말이겠지만, 내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가시같은 말이였다. 80년대의 거의 대부분과 90년대 초반 동안 나는 사회적 대립의 최전선에서 있었다. 그 시기는 나의 20대와 거의 일치한다. 강하게 주장하고, 끈질기게 투쟁하던 시절이었다. 그 시기를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그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20대를 빠져 나온 나의 몸과 마음은 너

무도 많이 지쳐 있었다. 가끔 평생 써야 할 에너지를 그 시기에 다 쏟아 부은 듯한 자기 연민적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20대의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만 할 뿐, 정작 그런 자신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설령 나의 청춘이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면의 성숙을 포기한 대가일 것이다.

출가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 삶은 담이다. 나머지 인생이다”라고. 의외로 이 단순 명료한 생각이 출가한 이후 너무도 비합리적인 온갖 상황들에 맞서 나를 버티게 한 힘이 되었다. 지금의 나는 20대의 내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모습에 가깝다. 뭘 하든 예전처럼 무모하게 덤벼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옳든 그르든 밖으로만 치달리던 그 시절이 내게 남긴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세상을 대할 때면, 나의 바깥으로 향하기보다 안으로 찾아오는 줄을 날도 잊을 거다. 20대에 지경도록 부르던 이 노래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는 새벽이다.

농촌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기 고



박안수
농협 청년교육원 교수

라디오에서 “금년산 조생종 양파의 직경 6cm 이하와 쌍구를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라는 양파 소비 홍보 방송을 들었다. 평년보다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이 약 30% 이상 늘어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식 같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격리시켜 조생종 양파 가격의 폭락을 막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농가 소득이 382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가했다고 한다. 농가 소득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증가되어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하지만 농가 소득은 농업 조수입(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차감한 농업소득, 농의 소득 그리고 이전 소득의 합산

으로, 문제는 농업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이다.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은 겨우 1005만 원 정도로 26.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금액은 지난 20여 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농업 소득 예측을 보면 향후 2~3년이 지나면 지금의 수준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유통의 특성상 적정 재배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심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농업 소득과 직결된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풋고추와 대봉 감 재배 농가의 막대한 손실, 최근 마늘·양파와 토마토의 가격 폭락으로 금년도 농업 소득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 농촌의 40대 이하 젊은 청년 농업인 구성비를 보면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농업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성장만이 결국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대 ‘가왕’으로 불리는 조용필은 농촌에 젊은 후계농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의 신문 기사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의 향기를 맡는다’ 내용의 ‘꿈’이라는 노래를 작사·작곡해 지금도 대중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남도와 관내 시·군은 대표적인 농도이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농가 소득은 그리 높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감귤을 제외한 특별한 작목 생산이 없는데도 제주도의 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쯤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농협에서는 2020년까지 농가 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비료와 농약, 사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을 대폭 인하해 공급하고 있으며, 출하되는 농산물의 수취 가격 제고를 위하여 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7기 지자체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 교섭 단체인 주요 정당에서는 농정 분야 공약으로 농업직불제 개편, 재해보험 지원율 상향, 농업인의 월급제 확대,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농민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기분이 든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온 내가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뜬금없고 황당한 생각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비로우려면 우선 자신에게 자비로우야 하지 않을까. 자비심은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자에게 선사하는 부처님의 선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할 진정한 벗은 자비심이다.

핑계 같은 놋두리가 길어졌다. 혹자는 종단 내 적폐 청산 운동에 공감하면서도 적극 동참하지는 않는 이런 나에게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안의 소리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속삭인다. 그 와중에도 몸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다. 이런 내가 지금의 현실을 고쳐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어쩌다보니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구경꾼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을 날도 있을 거다. 20대에 지경도록 부르던 이 노래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는 새벽이다.

社說

5·18 진상 규명 위해 계엄군 더 많은 증언을

5·18민중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광주 일보는 올해 5월 한 달 동안, 80년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계엄군 중 여러 명을 차례로 만나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었다. ‘5·18 계엄군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재된 이들의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증언자들은 “이제 많은 계엄군들이 양심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월 단체 회원들과 5·18기념재단도 5·18항쟁이 일어나지 벌써 40년에 다 되어 가는 데다 관련 기록들의 상당 부분이 왜곡된 상황인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당시 계엄군의 증언을 철저히 기다리고 있다.

취재진이 가장 최근에 만난 3공수여단 11대대 4지역대장 신순용(당시 소령) 씨는 “시만군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증언 이후 전국의 신문·방송에 출연해 5·18의 진실을 알렸으며, 5·18기념재단이 추진했던 옛 광주교도소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조사에도 참여했다. 신 씨는

“증언 이후 신군부 잔존 세력의 협박이나 5·18유가족의 항의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유가족들은 진실 증언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면서 “당시 계엄군들이 용기 있게 고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증언자들은 ‘모든 것은 군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전두환 씨 책임’이라며 군 내부의 증언을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계엄군들은 증언을 하고 싶어도 ‘정권이 바뀌면 다칠 수 있다’는 우려와, 고백 이후 주위의 비난이 두려워 몸을 사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계엄군의 5·18 양심선언은 공수부대 가운데 1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출신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5·18초기부터 항쟁 이후까지 가장 오랜 기간 광주에 주둔했던 7공수여단 출신 계엄군의 증언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용기 있는 증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사면과 함께 신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광주지하철 라돈 검출 원인 조사부터 해야

국내 한 집대 회사 제품에서 시작된 라돈 공포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라돈 공포는 집대에서 시작됐지만 집은 물론 지하철과 대형마트 등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공기처럼 접할 수 있는 만큼 공포감은 훨씬 크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인 방사성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전세계 폐암 발병 원인의 6~15%가 라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지하철 집수정(배수펌프실)의 라돈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광주지하철 광주공항역 집수정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전국 최고치인 4018.2Bq(베크렐)/m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라돈 적정 권고 기준인 148Bq(베크렐)/m보다 27배나 높았다. 문화관광체육부 기준치의 12배에 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집수정은 고인 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지하철 선로보다 낮은 데 있고 차단문이 있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배수 작업을 위해 작업자들이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원 10명이 1주일에 1~2회씩 정기적으로 배수펌프실 검측 작업을 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하수 유출이 많고 라돈을 함유한 암반이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제대로 된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밀조사를 통해 라돈 농도가 현저하게 높은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체에 정부나 광주시 차원의 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 정밀 측정도 필요하다.

無 等 鼓

미국 지식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보다는 그의 ‘무식’에 더 진지리를 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이름을 날리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만약 앤드루 잭슨이 조금만 더 늦게 나왔더라면 남북전쟁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잭슨은 남북전쟁과 관련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 이처럼 트럼프는 남북전쟁(1861~1865년) 훨씬 전에 사망한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1767~1845년)이 남북전쟁을 겪었다고

은 이에 대해 트럼프와 교감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보고, 6월로 예정된 북미회담을 보이콧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 북한은 리비아 핵 폐기 모델에 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한데,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살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다행히 트럼프가 최근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트럼프의 반전

말해 그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또 지난해 워싱턴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연 뒤 “한반도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더라”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말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탓에 점잖은 오바마 대통령조차 트럼프가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리비아식 모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트럼프의 북심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다. 북한

언급, 사태는 일단 진화했다. 하지만 미국 식자들은 트럼프가 리비아식 모델을 몰랐을 거라며 그의 무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성사될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미국 특유의 합리적인 사고로 회답에 임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역사에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지만, 현실을 보는 안목만큼은 날카롭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기자 인 실 220-0536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